

사설

사찰환경은 민족문화

사찰환경의 보존과 민족문화유산 지키기 위한 본말사 주지 대회가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열린다. 25개 전국교구본사가 주관하여 본말사의 주지스님 30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결의대회는 한국 불교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찰환경과 민족문화수호를 단일 슬로건으로 결고, 이렇게 종단차원에서 대규모 공식 집회를 통해 천명하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개발독재시대에는 '권력'으로 사찰수행공간이 파괴됐고, 민주화시대에 들어와서는 지방자치의 실시와 규제완화정책으로 '돈'에 의해 민족문화유산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찰환경보존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갈등-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찰은 50여개가 넘는다고 한다.

일부 재벌들과 정부의 개발주의 관료들의 이기심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와 해인사 등의 유수한 불교성지가 위협을 받고 있다. 고속전철과 고속아파트의 건설, 골프장·스키장·리조트 등 특정계층을 위한 위락시설의 건설 등으로 수행공간과 문화환경이 황폐화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번 사찰환경수호 결의대회를 계기로 우선 정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풀어내는 것이 시급하다.

첫째, 지금까지 불교계가 제기하고 있는 사찰환경의 보전과 각종 관계법령의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전통사찰보존법을 비롯한 각종 불교관련 법령에 추가 보완하는 방안과 함께 문화유산 보존법을 새로 제정하여 파괴한 사찰환경의 보존·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지금까지의 잘못된 문화재 정책과 공원 정책을 수정·보

완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환경보존 정책과 연계시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사찰의 수행공간을 침해하고 삼보장재를 훼손하는 공원정책·문화재 보호정책의 개도수정이 불가피하다.

셋째, 가라앉고 버려진 옛 절터와 민족문화유산을 찾아내서 복원시키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재정지원은 물론 인재양성과 교육홍보도 요구된다. 일제 식민지사관과 제국주의사관에 의해 우리 민족의 유산인 삼보장재가 소멸되고, 황폐화된 것을 되살려 내는 작업이 요망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추진과 함께 불교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새롭게 인식하자.

첫째, 부처님사상에 바탕을 둔 환경관과 지언관을 정립하고 전국에 있는 사찰은 이를 실천하는 환경교육·환경운동의 중심부가 되어야 한다.

둘째, 환경문제·생태계의 구조와 실태 등에 관한 교육담당기관의 설립·지원·육성이 종단과 법의 불교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사찰의 환경실태와 피해상황 및 각종 사례를 늘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관의 설립과 여론조성을 위한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대책기구의 구성이 요망된다.

넷째, 사찰이 청정한 수행공간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널리 홍보하고 계몽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청정도량 수호운동을 통한 사찰환경 지키기를 일상화한다.

다섯째, 지역의 환경단체·다른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환경운동을 펼쳐나간다. 특히 국립공원지킴이운동이나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운동, 무공해먹거리 보급을 위한 생활협동조합운동, 녹색휴가보내기운동 등을 추진하는 범불교적 연대가 필요하다.

열린마당

신도교육 의무화

신도교육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조계종중앙총회 포교분과위원회는 포교원이 마련한 '신도교육 체계화방안'을 바탕으로 신도교육 의무화를 위한 연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포교분과위원회의 신도교육은 종단의 미래성과 긴밀하게

기복탈피 불자상 정립...2년내 추진

신도교육은 종단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이다. 신도가 입문과정에서 바른 신앙의 관점을 세우는 문제에서부터 교리 이해, 수행법, 종단 규범의 이해, 권리·의무 행사, 신도조직 활동, 신도 법제, 불교의 의례의식, 사찰운영 참여 등에 대한 교육방안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그간 종단 차원에서 이런 과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단위 사찰과 수행단체에서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안을 잘 조사하여 종단 차원의 통일된 신도교육 체계화 방안으로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벽암 (조계종총회 포교분과위원장)

이것은 단순히 신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불교와 종단의 발전은 신도 교육과 조직화에 달려 있다는 확고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종단 차원의 신도교육 방안을 세우는 데는 산업문명과 인간의 탐욕으로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주제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와 맞물려 있다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특히 불교정신을 바로 구현한 불교적 인간상의 정립은 한국불교의 절실한 과제라 하겠다.



〈조계종 신도교육 체계화방안〉

단계 구분	기 초	기 본	중 급	고 급	재교육
교육 과정	사찰 안내 법회 안내 사찰 예법...	사찰 안내 불교관 부처님 생애 삼귀의 사찰서원 육사리일 한국불교사 불교문화 이해 종단·종지·종중 신도권리·의무·수련·봉사 활동 성지순례...	신행공동체 이해 기본경전 이해 수행법·실수 불교 문화 불교 사회역사관 방편이론 (교육·환경·시민·소비자·여성·통일·지방자치론...) 종단법규 이해 포교론 지도력 향상 수련·봉사활동 성지순례...	수행 주요경전 이해 불교사 불교 문화 종단법·편제... 사회역사관 방편이론 지도·조직론 포교론(설법) 세미나 수련·봉사 행사 참여 성지순례...	경전읽기 모임 환경모임 통사모임...
수계	삼귀의계	오계	보살계	포교사	
주관	사찰	사찰	사찰	교구본사 이상	
의무	의무화	의무화	자율	자율	

조계종 포교원 신도교육 시안 마련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10월 포교사 연수교육 자료집을 통해 신도교육체계화방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신도교육은 기초·기본·중급·고급·재교육 등 5분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기초·기본교육은 각 사찰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포교원은 "신도교육체계화방안"은 논의를 위한 시안이며,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모범형질 불광법회

불광법회(주지 지철)는 18년전부터 신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수정의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정식불자로 입문하는 수계를 받을 수 있다.

성인입문자의 경우 반드시 '입문과정'과 '바라밀과정'으로 이름붙여진 불교기초학습을 거쳐야 한다. 기초과정은 모두 매주 두차례 강의가 실시되며 1개월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는 사찰예절과 기초교리 화엄경의 보현행원 품을 배운다. 교육과는 별도로 법회에 4회 이상 동참하여야 한다.

기초과정을 마치면 바라밀과정으로 이어진다. 60시간 3개월의 과정이며, 정기법회에 10회 이상 동참하여야 한다. 금강경과 반야심경 천수경 등 경전공부를 하면서 바라밀심장을 배우고 익힌다.

기초과정을 마치면 삼귀의계, 바라밀과정을 마치면 5계를 받을 수 있다. 수계에 앞서 기초·바라밀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18년전부터 초심자 정기교육 실시

입문·바라밀과정 거쳐야 오계받아

빙해 강의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불광법회의 신도교육은 회주인 광덕스님에 의해 정착되었으며, 18년전부터 실시되고 있다.

불광법회 이종사무장은 "교육과정이 초심자들에게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불교를 확실히 알아야 신심도 그만큼 증진된다는 광덕스님의 당부에 따라 입문자 교육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찰 신행형태 차이 극복 '관전'

신도교육 의무화계획이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이 계획은 불교가 현대사회의 기능화에 대응해 자기 존립의 기반을 마련함과 타종교의 조직적 역할에 대한 상대적 열악함을 극복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포교원의 신도교육 의무화의 과제를 보면 각 사찰단위로 기초, 기본과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정식불자로 수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종급, 고급단계를 마련하여 포교사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주경 (수덕사 포교국장)

신도교육을 의무화하는 일이 종단의 발전을 위한 좋은 의도에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고려하고 준비하여야 할 일이 적지 않다. 현대의 사찰은 수행, 기도·불공, 포교, 사회봉사의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사찰의 전통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기도 하고 도심과 시골 등 지역의 차이에 의해서도 신행의 형태가 다르게 수렴되어 있다. 무엇보다 다도 말사의 주지소임을 맡고 있는 대다수 스님들의 현재의



현대만평



밝은 곳으로...

목어

수능시험이 있던 날(11월13일) 오후8시 무렵이다. 용산에서 노랑진쪽으로 향하는 한강대교 위의 자동차들은 감속상태로 움직이고 있었다. 버스에 앉아서 브니 앞에 가고있던 승용차 운전석에서 손이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담배재를 떨어뜨렸다. 잠시후 '확' 담배공초가 다리위로 떨어졌다. 무의식중에 변호관으로 눈이 졌다.

'서울X 프421X'
"길가에 나뭇가지로 담배공초인데 뒤 그까지 일로 처리번호가

지 외우고 아담인가' 수선스럽다고 생각할 수도있다. 바로 그점이 문제다. 하찮은 일 같지만 사소한 시민정신 결여에서 질서부재, 도덕성 부재, 청소년문제 등이 싹튼다면 지난한 비

어른에게 물드는 청소년

약일까. 생각없이 담배공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어른의 모습에서 청소년들은 무엇을 배울것인가. 미래의 주인 청소년들이 병들면 나라의 내일이 어둡다. 그런데도 우리들의 청소년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늦었지만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에게 음란비디오·담배·술 등을 팔거나 18세미만 청소년을 술집등 유해업소에 고용할 경우 징역·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종교계도 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기위해 나섰다. 불교등 7개 종교지도자들은 12일 이수성총리를 방문, 5개항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청소년유해환경의 주범은 누구

새싹별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미리 포기하지 말라

받드시 머리 앞일을 생각하여 해야 할 바를 포기치 말라. 이같은 마음으로 내일이 닦아 의무 대해 때를 잃지 않도록 하라. (법구경)

수안사 주지 세민 TEL.(02)587-4677

제2회 불국정토실현과 불교중흥을 위한

불교발전 대강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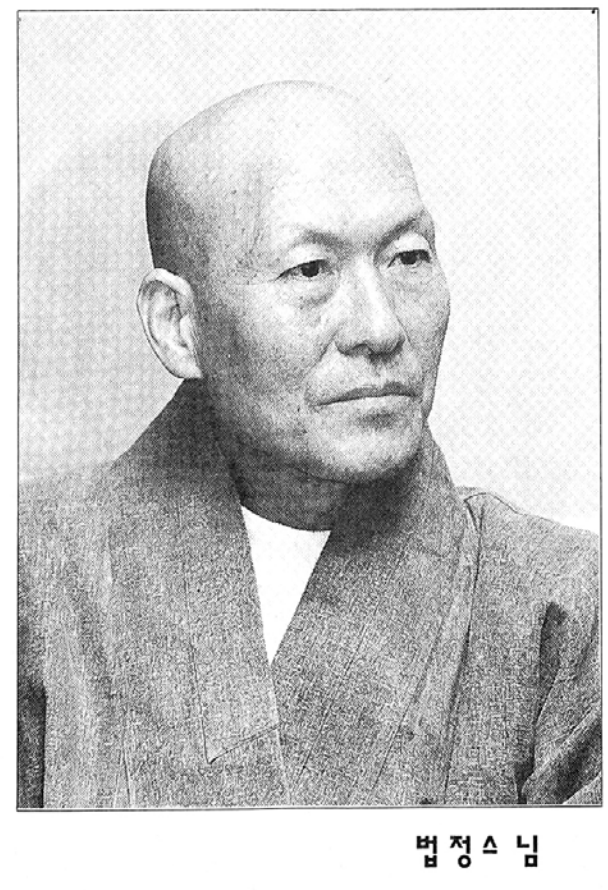
(장학금 수여식)

무료입장

선택하는 **삼!!**

- 일시: 불기2540(1996)년 11월 19일(화) 오후 2시
- 장소: 시민회관대강당
- 문의처: (051)466-7174(부산불교실업인회 사무소)

●주최: 부산불교실업인회 ●후원: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MBC부산문화방송,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교계인론사, 교계신행단체



법정스님